

역사드라마의 변천과 특성*

주창윤**

<차례>

1. 문제의 제기
2. 역사드라마 시기구분의 기준
3. 역사드라마의 외제적 변화: 제작과 맥락
 - 3.1. 제작환경의 변화
 - 3.2. 역사드라마의 변용과 계기
 - 3.3. 평균제작 편수와 원작 각색
4. 역사드라마의 내제적 발전
 - 4.1. 형식 변화
 - 4.2. 시대배경
 - 4.3. 서사와 서술방식
5.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53년 동안(1964~2016) 역사드라마의 진화과정에서 각 시기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를 논의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외제적 변화와 내제적 발전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역사드라마의 시기를 구분했다.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 역사드라마는 5단계를 거쳤다. 첫째, 1964년~1971년은 ‘옛 이야기와 교양의 시기’다. 역사영화와 라디오 역사드라마의 인기가 텔레비전 역사드라마 구성에 영향을 미쳤고, 역사드라마는 주간연속극 형식의 멜로드라마로 제작되었으며, 허구적 역사서술이 두드러졌다. 둘째, 1972년~1982년은 ‘경쟁과 국민제도의 시기’다. 역사드라마의 형식이 주간연속극에서 일일연속극으로 바뀌었고, 역사드라마 장르의 경쟁력은 커져갔다. 역사드라마의 서술방식은 허구적 서술에서 벗어나서 인물중심의 개연적 서술로 바뀌었다. 정권은 유신체제의 민족사관론을 강요했지만, 목적극은 대중성을 얻는데 실패했다. 셋째, 1983년~1990년은 ‘사실(史實) 추구’의 시기’이다.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컬러 방송이 시작되었고 공영방송체제로 방송환경이 바뀌었

다. 방송 프로그램이 대형화되었으며, 로케이션 촬영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역사드라마는 고종과 사료에 충실한 기록적 역사서술 방식을 취했으며, 일일연속극은 주중연속극으로 바뀌었다. 넷째, 1991년~1999년은 ‘침체와 모색의 시기’다. 역사드라마는 주중연속극과 주말연속극으로 편성되었으며, 역사드라마 제작은 침체에 빠져 있었고, 대중들은 역사드라마를 외면했다. 다섯째, 2000년~2016년은 ‘상상의 역사서술 시기’다. 역사드라마는 정치나 방송환경의 외적변화보다는 장르 내제적 발전으로 상상의 역사를 묘사했다. 역사드라마의 인기는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표현방법과 연출도 새롭게 바뀌었다. 게다가 역사배경도 과거 조선 중심에서 벗어나서 고려시대, 고조선과 남북국 시대를 다룬 것들도 증가했다.

주제어 : 서술방식, 시기구분, 역사드라마, 장르사, 제작환경의 변화

1. 문제의 제기

1964년 텔레비전 역사드라마가 처음 방영된 이후 50여 년이 지났다. 지난 53년 동안(1964~2016) 역사드라마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역사드라마는 여타 텔레비전 드라마 장르와는 다르게 변화되어왔는데, 그것은 시대에 따른 정치적, 문화적 요구와 역사드라마의 내제적 변화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물론 멜로드라마나 로맨틱 드라마 등도 사회 변화와 분리되어 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드라마의 변천처럼 서술방식이나 특징적인 구별점이 시기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이것은 아마도 역사드라마의 사회적 역할이 다른 드라마 장르와 다르고, 가족 사랑이나 남녀사랑이라는 보편적 주제는 단기적으로 급속히 변화하기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 데이터베이스와 해제:1964~2014」(2016)에 기초해서 수행되었다. 여기서는 기초자료로 318편의 역사드라마 목록을 제시했으며, 10년 단위로 역사드라마의 변화추이를 객관적으로 기술했다. 그러나 역사드라마의 변천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설정한 10년 단위는 한계가 있다. 10년 단위는 편리성에 의한 설정이지 구분의 타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역사드라마 분석이 형식과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과제입(NRF-2014S1A5A2A01013744)

**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영역들(제작환경, 서술방식, 서사, 시대배경, 사회적 맥락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분석대상은 기존 연구에서 누락된 드라마 7편과 2015년 6편, 2016년 7편의 드라마를 추가해서¹⁾ 총 338편이다.

이 연구는 지난 50여 년 동안 역사드라마의 장르사적 변화과정을 외재적 변화와 내재적 발전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화 텍스트는 사회적 맥락과 환경의 변화라는 외재적 요인과 텍스트의 내재적 발전과정을 통해서 구성된다. 역사드라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정 장르의 텍스트가 사회적 맥락과 환경변화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는 것은 단순한 결정론적 관점이다. 사회적 변화와 맥락은 특정 텍스트가 구성되는데 범위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범위를 설정한다는 것은 텍스트가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어떤 경계를 설정한다는 뜻이다. 즉 사회적 환경과 맥락의 변화라는 외재적 요인의 범위 내에서 특정 장르 텍스트는 내재적으로 변화한다. 때때로 특정 텍스트의 내재적 변용은 사회적 맥락이 규정한 범위나 기대를 넘어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역사드라마의 외재적 요인들(제작환경의 변화, 역사드라마의 변용, 평균제작 편수와 원작 각색)과 내재적 발전(형식 변화, 시

대배경 설정, 서사와 서술방식)을 중심으로 역사드라마의 변화과정을 살피는 데 있다.

2. 역사드라마 시기구분

역사연구에서 시기구분은 역사적 안목을 정립하고 역사이해의 출발점을 제시한다. 시기구분은 역사의 계기적 흐름을 거시적,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시기구분은 시간적, 공간적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왔는데, 대체적으로 정치사, 경제사, 사회문화사라는 기준으로 설정되어왔다.

기술의 변화, 사회적 맥락, 미디어의 내용과 기능, 집단으로 형성된 수용자라는 네 가지 기준이 미디어 연구의 시기구분으로 제시되어왔다.²⁾ 네 가지 기준은 미디어 역사를 구분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텍스트라는 문화형식으로서 역사드라마의 시기구분은 장르 특성에 맞게 새롭게 기준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장르사는 “장르의 구문론과 의미론적 요소를 통해서 그들 사이의 변화와 상호작용의 패턴을 추적하는 것”³⁾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것은 ‘텍스트의 코드화’로서 구문론과 의미론의 변화과정이라는 텍스트 중심적 관점이다.

닐(Neale)은 “장르는 텍스트의 코드화된 형식일 뿐만 아니라 수용자 사이에 순환하는 기대와 관습의 체계들”⁴⁾로 규정하면서 ‘반복’(repetition)되어 나타나는 관습과 장르 내에서 ‘차이’(difference)와 ‘변형’(variation) 그리고 ‘변화’(change)의 과정을 주목한다. 그는 장르사를 텍스트의 코드화, 산업,

1) 역사드라마 데이터베이스(1964~2014)는 318편 목록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기존에 누락된 7편과 2015~2016년 13편을 추가해서 총 338편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기존 자료에서 추가된 역사드라마는 <국난의 영웅들> (1970, KBS), <무악재 세돌이> (1976, TBC), <과천무> (1980, KBS), <명인비화> (1980, KBS) <전설의 고향> (후속편)(1996~1999, KBS2), <구미호: 여우누이뎐> (2010, KBS2), <아랑사또전> (2012, MBC) 이다. <국난의 영웅들> 은 주간연속극으로 역사의 영웅들을 그려낸 것이었고, <과천무> (1980)는 세조의 정권찬탈을 다루었고 있다는 이유는 5공 정권에 의해 조기 종료되었다. <과천무> 는 1990년 다시 제작되기도 했다. <과천무> 가 조기 종영되어 갑자기 제작된 것이 <명인비화> 다. <전설의 고향> 은 1977년~1989년까지 KBS1과 KBS2에서 방영되었다가 1996년에 다시 시작했다. 이전 자료에는 전편만 기록되어 있었다. 제목은 같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드라마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추가했다.

2) McQuail, D., *McQuail's Mass Communication Theory*(5th Edition), London: Sage, 2005.

3) Altman, R. *Cinema and genre*, In G. Nowell-Smith(Ed.), *The Oxford History of World Cinem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284.

4) Neal, S., *Genre*, London: British Film Institute, 1980, P.10.

수용자의 기대라는 세 가지 기준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장르의 변화과정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하나는 ‘텍스트의 코드화 과정’으로 변형과 차이가 나타나는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텍스트 외적인 변화과정(기술, 사회적 맥락, 수용자의 관심 등)이다. 왜냐하면 텍스트로서 역사드라마는 장르 내재적 발전과정과 외적 환경변화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다만 고려되어야 할 것은 텍스트의 내재적 발전과정, 즉 코드화의 변화과정은 형식변화, 서술방식, 배경으로서의 역사 등을 통해서 일관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외적 환경변화는 간헐적이거나 부분적인 요인으로 작동한다.⁵⁾

역사드라마의 장르사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병훈은 역사드라마의 시기구분으로 i) 초창기(1964~1968): 첫 역사드라마의 방영에서 KBS와 TBC의 제작시기, ii) 발전기(1969~1975): 방송 3사의 경쟁시기, iii) 전환기(1976~1989): 정부의 편성통제에 따른 민족사관정립극 제작시기, iv) 전성기(1981~1990): 컬러 방송의 시작과 정사드라마 경쟁시기, v) 침체기(1991~1994): 역사드라마의 퇴조 시기, vi) 부흥기(1995~현재(1997)): 역사드라마에 대한 관심고조 시기로 구분했다.⁶⁾ 이것은 생물학적 기능 분류법⁷⁾으로 볼 수 있는데, 기능적 구분은 장르 내적 변화를 밝혀내기 힘들다.

정영희는 한국 사회의 변화에 따라 텔레비전 드라마 변화 시기를 구분했다. 정영희는 전체 드라마의 시기를 나누었는데, 역사드라마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면, i) 옛 이야기 들려주기와 영웅이야기(1964~1969), ii) 민족정신 함양(1970~1974), iii) 민족사관 정립(1975~1980), iv) 민족정체성 함양

(1981~1986), v) 시련기 민족의 삶(1987~1991), vi) 역사 즐기기(1992~1995), vii) 시의성으로서 역사(1996~현재(2005)로 구분했다.⁸⁾ 이 시기구분은 사회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 드라마의 변화과정의 틀 속에서 역사드라마를 정의하는 한계가 있다. 주창윤은 i) 옛 이야기와 교양 시기(1964~1972), ii) 민족 이데올로기 생산시기(1973~1980), iii) 맥락 중심의 정사드라마 제작시기(1981~1994), iv) 대형화와 대중성 획득 시기(1995~2006)로 구분했다.⁹⁾ 이것은 역사드라마의 형식과 내용의 변화만을 고려한 구분으로 제작이나 외적 환경변화는 배제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연구의 시대구분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외재적 변화와 내재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장르의 시대구분을 시도할 것이다.

3. 역사드라마의 외재적 변화: 제작과 맥락

3.1. 제작환경의 변화

역사드라마의 시기구분을 설정하는데 주목해야하는 시점은 1970년~1973년, 1981년~1983년, 1989년~1991년, 1999년~2001년이다. 이 네 시기가 역사드라마의 제작환경의 변화를 이끈 전환점이었다.

첫 번째 시점은 1972년 전후다. MBC가 개국하면서 1970년부터 방송 3사 드라마 경쟁은 치열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1971년 전체 드라마에서 역사드라마가 차지하는 비율은 12.7%에 불과했지만,¹⁰⁾ <장희빈>은 일일 연속극에서 역사드라마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1972년 일일연속극으로 방

5) 물론 텍스트 외적 환경변화가 상황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70년대 중반 유신체제가 강요한 국난극복드라마나 민족사관정립극이다.

6) 이병훈, 「TV사극의 변천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7) 역사드라마는 아니지만 텔레비전 드라마의 기능적 분류로 오명환의 연구가 있다. 오명환은 TV드라마의 태동기(1956~1961), TV드라마의 개척기(1962~1964), TV드라마의 형성기(1965~1969), TV드라마의 경쟁기(1969~1980), TV드라마의 성숙기(1981~1991), TV드라마의 전환기(1992~현재(1994)로 구분한다.

8) 정영희, 『한국 사회의 변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9) 주창윤, 「역사드라마의 장르사적 변화과정」, 『한국극예술연구』 제25집, 2007.

10) 『매일경제』, TV드라마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 1972년 3월 25일 6면

영된 역사드라마는 10편(KBS 6편, MBC 2편, TBC 2편)이나 되었다. 그만큼 시청자의 요구가 높았다.

반면,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한 정권은 1973년 봄 편성부터 주체적 민족사관을 계도하는 역사드라마 제작을 강요했다. 대중과 정권의 관심은 역사드라마였지만 그 목적은 달랐다. 1972년 전후 역사드라마가 주간연속극에서 일일연속극으로 바뀌었고, 드라마 경쟁의 중요 장르로 부상했다. 정권은 주체적 민족사관론을 역사드라마에 주입하도록 강요했고, 1960년대 허구적 역사서술로부터 벗어나서 인물 중심의 개연적 역사서술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시점은 1983년 전후에 나타났다.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컬러방송(1980년 12월)이 시작되었다. TBC가 방송통폐합으로 사라지면서 공영방송체제(KBS1, KBS2와 MBC)로 방송환경이 바뀌었다. 1981년 1월 시작한 <대명> (KBS1)과 <교동마님> (MBC)은 컬러로 제작했고, 방송 프로그램 전체에 걸쳐 대형화와 로케이션 촬영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역사드라마도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로케이션 촬영(민속촌, 경복궁, 비원, 낙안읍성 등), 의상과 미술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동시에 고종과 사료에 충실한 작품들이 1983년부터 등장했다. <개국> 과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 가 새로운 역사드라마의 흐름을 이끌었다. 일일연속극은 줄어들었고, 주중연속극이 주요 형식이 되었다.

1972 (1970~1973)	유신	· MBC(1969)개국 · 방송3사 경쟁체제 · 민족사관 정책	· 일일연속극 경쟁 심화	· 일일연속극 · 개연적 역사서술	<장희빈>
1983 (1981~1983)	제5공화국 출범	· TBC 해체 컬러 방송(80.12) · 공영방송체제	· 드라마 대형화 · 로케이션 촬영확대	· 형식혼합 · 기록적 역사서술	<개국>,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
1991 (1989~1991)	1987년 민 주 화 운동	· SBS 개국 · 방송소재 다양화 · 방송민주화	· 트렌디 드라마 · 제작비 증가 · 1990년 역사 드라마 2편 제작 (역대최소)	· 주중 주말 연속극 · 개연적 역사서술	<유심초> 시청률 저조
2000 (1999~2001)	I M F 경제 위기	· 오픈 세트 투자 확대	· 역사드라마 높은 시청률 · 소재의 확대 · 탈민족, 현실과 알레고리 등	· 주중 주말 연속극 · 상상적 역사서술	<해운> <태조왕건>

<표 1> 역사드라마 변화의 시점

시기	맥락	방송사와 정책	드라마 일반	주요형식과 서술방식	주요 드라마
1964		· TBC 개국	· 생방송, 편집 기능 없는 녹화	· 주간연속극 · 허구적 역사서술	<국토만리> <민머느리>

세 번째 시점은 1991년 전후로 민주화 흐름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폭발했던 시기였다. 방송도 정권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통제에서 벗어났으며, 드라마 소재에 대한 규제도 풀렸다. 신세대 문화가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드라마 영역에서는 빠르고 경쾌한 트렌디 드라마들이 떠올랐다. 반면 역사드라마는 퇴조하기 시작했다. 1990년 역사드라마는 역대 최소로 2편만이 제작되었다. 1991년~1994년까지 역사드라마가 각각 3편씩 제

작되었을 뿐이다. 역사드라마의 형식은 주중 · 주말연속극으로 고정되기 시작했지만, 시청자들은 역사드라마를 외면했다.

마지막으로 1999년~2001년 사이에는 사회적 맥락이나 방송정책의 변화보다는 역사드라마의 내재적 발전(텍스트의 코드화)이 두드러졌다. 이전 시기에서 역사드라마는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제작의 관점에서 보면, 오픈 세트가 확대되었다. <태조왕건>은 문경, 안동, 제천 곳곳에 오픈 세트에서 촬영되었다. 오픈 세트는 드라마의 스펙터클을 확장하면서 공간뿐만 아니라 전투장면, 무대장치, 의상, 과거 생활양식 등은 역사드라마의 극적 재미를 증가시켰다. <태조왕건> 이후 <상도>, <토지>, <해신>, <불멸의 이순신> 등에 이르기까지 오픈 세트는 드라마 제작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허준>은 새로운 연출을 보여주면서 이후 역사드라마의 연출방식이 변화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2000년 이후 역사드라마는 사료에 의존하기보다 상상적 역사 서술방식으로 바뀌었으며 로맨스를 역사와 결합하는 혼종의 서사가 두드러졌고, 표현 방식으로서 연출도 바뀌었다.

역사드라마의 소재는 과거 조선 시대 중심에서 고려사와 고대사(고구려, 백제, 신라)로 확장되었고,¹¹⁾ 강한 민족주의와 더불어 탈민족의 경향도 나타났다. 이것은 역사드라마가 역사 속에 위치한 인간의 보편적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역사드라마들로 <대망>(2002~2003, SBS), <다모>(2003, MBC), <추노>(2010, KBS), <짝패>(2010~2011) 등을 들 수 있다. 역사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비주류의 인물들도 증가했다. 천민, 서민, 중인, 서자 출신들이 등장하거나 여성인물의 중심성도 높아졌다.

2000년대 역사드라마의 변화는 대중성의 확대에 이어졌다. 평균시청률

(TNS자료)를 보면, <허준>(1999~2000, MBC) 48.3%, <태조왕건>(2000~2002, KBS1) 42.6%, <여인천하>(2001~2002, SBS) 36.2%로 역사드라마는 인기 장르로 다시 떠올랐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전체 지상파 드라마 평균 시청률은 14.7%였지만, 역사드라마 평균 시청률은 21.2%로 매우 높았다.¹²⁾

3.2. 역사 드라마의 변용

역사드라마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왔는데, 변화를 이끈 계기가 되는 작품들이 있다. 역사드라마는 기존 드라마와 유사하게 제작되지만, 차이와 변용을 통해서 전환점을 만들기도 한다. 각 시대별로 역사드라마의 변용을 이끈 요인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지만, 새롭게 나타난 형식, 내용, 소재, 서술방식 등을 고려해서 파악할 수 있다.

지난 50여 년 동안 변화의 전환점을 제공한 역사드라마들로 다음과 같은 작품들을 들 수 있다. 1960년대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 사이에 교류가 있었는데, <민머느리>(1964, TBC)는 방영 다음해 1965년 영화로 제작되었다. <민머느리>가 방영 후 어느 정도 시청자의 관심을 끌었는지 기록이 없지만, 영화로 제작된 것으로 추측하면 시청자의 반응이 높았으리라 판단된다. 반면 1962년 라디오 드라마로 방송되었던 <수양대군>은 1966년 텔레비전 드라마로 다시 제작되었다. 이 두 작품들은 매체 간 교류를 보여준 첫 번째 사례들이다. <성춘향>(1967, TBC)은 최초로 고전소설을 각색해서 제작되었다. 고전소설 <춘향전>은 1967년, 1971년, 1974년, 1984년에 걸쳐 4번 제작되기도 했다.

11) 1970년~1999년까지 30년 동안 삼한 시대를 다룬 역사드라마는 총 3편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삼한 시대를 다룬 역사드라마는 15편(고구려 7편, 백제 4편, 신라 3편, 가야 1편)이나 되었다.

12) 주창윤, '역사드라마의 역사서술방식과 장르형성', 『한국언론학보』 제48권 1호, 2004, 183면.

〈 표 2 〉 역사드라마의 변용과 맥락

시기	역사드라마	새로움과 변용	맥락
1964	〈국토만리〉 (KBS)	허구적 서술방식, 최초의 역사드라마	TBC개국
	〈민머느리〉 (TBC)	1965년 영화로 제작	드라마와 영화의 교류
1966	〈수양대군〉 (KBS)	1962년 라디오 드라마를 드라마화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교류
	〈대원군〉 (TBC)	인물중심 역사드라마	
	〈임궫정〉 (KBS)	최초 의적 드라마	
1967	〈성춘향〉 (TBC)	최초 고전소설 각색	1969 MBC개국
1970	〈국난의 영웅들〉 (KBS)	국민계도의 목적드라마, 이후 국난극복드라마, 민족사관정립극으로 변화	정부의 계도정책
1971	〈장희빈〉 (MBC)	일일연속극으로 인기	역사드라마 경쟁
1979	〈토지〉 (KBS)	왕조사 역사소설에서 탈피	KBS, SBS에서도 제작
1982	〈풍운〉 (KBS1)		
1983	〈개국〉 (KBS1) 〈추동궁마마〉 (MBC)	정사드라마의 출발 조선왕조500년 시리즈(1983~1990)	
1995	〈용의 눈물〉 (KBS1)	높은 시청률, 현실과 드라마의 시의성	역사드라마 침체기를 벗어나는 계기
1999	〈허준〉 (MBC)	역사드라마 연출의 변화, 평균시청률 48.3%	상상적 역사서술의 대중화 IMF와 성공신화
2000	〈태조왕건〉 (KBS1)	고려사에 대한 관심	대형 오픈세트(지자체)
2001	〈여인천하〉 (SBS)	권력과 여성의 표상변화,	여성인물의 재해석
2003	〈다모〉 (MBC)	다모 페인 등장(새로운 시청자 집단) 만화원작의 사용(『조선여형사 다모』)	퓨전 역사드라마 사전제작

2006	〈주몽〉 (MBC)	고조선 소재, 평균 시청률 49.7%	고구려 역사드라마 제작 붐
2012	〈닥터 진〉 (MBC)	타임 슬립 드라마	

1970년 〈국난의 영웅들〉은 본격적인 정책 역사드라마이다. 1970년 정부는 민족정신의 함양과 건전한 사회지향의 대전제 하에 드라마 제작지침을 제시했다. 당시 국영방송이었던 KBS는 이에 따라서 〈국민교육헌장무대〉와 〈국난의 영웅들〉을 편성했다.¹³⁾ 〈국민교육헌장무대〉는 현대극으로 사회 계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국난의 영웅들〉은 민족정신 함양을 목표로 제작된 역사드라마였다. 〈국난의 영웅들〉은 3회 50분씩 구성되었는데 장보고, 태조 왕건, 강감찬, 삼별초 등을 다루었다. 1970년 7월부터 〈국난의 영웅들〉은 제목을 연속사극으로 바꾸어 효종의 복벌을 다룬 〈복벌검〉과 〈김옥균〉 등으로 이어졌다.

〈국난의 영웅들〉은 국난극복드라마(1973~1974)와 민족사관정립극(1976~1977)으로 이어졌다. KBS는 1973년 3월 국영방송체제에서 공사체제로 전환되었지만 계도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변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국난극복드라마로는 일일연속극인 〈세종대왕〉(1973, KBS), 〈강감찬〉(1973), 〈소명〉(1974), 〈충의〉(1974) 등이 있다. 〈소명〉은 이성계, 〈충의〉는 신숙주의 일대기를 다룬 것이다.

국난극복드라마는 1976년 민족사관정립으로 바뀌었다. 1976년 박정희 정권은 ‘국민교육매체화방침’을 제시하여 저녁 7시~9시까지 사회교양 프로그램 편성을 강제했고, 저녁 8시대에 최소 25분 이상 국민교양을 위한 드라마 제작을 요구했다.¹⁴⁾ 그러나 민족사관정립극은 대중적 인기를 얻

13)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1970년 3월 12일, 8면.

14) 조항제, 1970년대 한국 텔레비전의 구조적 성격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과 텔레비전 자본주의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 신문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107~108면.

지 못했고 1978년 사라졌다.¹⁵⁾

〈장희빈〉(1971~1972, MBC)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일일연속극으로 인기를 끌었다. 〈장희빈〉은 역사드라마가 일일연속극으로 정착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으리라 추측된다.¹⁶⁾ 〈장희빈〉이 방영되었던 기간에 불쌍한 인현왕후를 구하려는 시청자들의 해프닝도 있었다. 악녀 장희빈의 모함으로 착한 인현왕후가 내쫓기려하자 시청자들이 전화와 편지로 항의하면서 이야기가 변경되어 인현왕후는 원래 계획보다 한 달이나 늦게 쫓겨나 버렸다. 〈장희빈〉은 1971년 성공 이후 거의 10년 기간마다 드라마에 등장하고 있다. 〈여인열전 제1화 장희빈〉(1981~1982, MBC), 〈장희빈〉(1995, SBS), 〈장희빈〉(2002~2003, KBS2), 〈장옥정 사랑에 살다〉(2013, SBS)로 이어지고 있다. 김아네스는 역사드라마에서 장희빈이 ‘악독한 요화’(1971), ‘권력투쟁의 희생양’(1981~1982), ‘신분 상승을 꿈꾸는 여인’(1995)(2002~2003)으로 시기마다 다르게 해석되어 왔다고 밝히고 있다.¹⁷⁾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서 장희빈은 패션 디자이너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인물로 묘사되었다.

〈토지〉(KBS)는 박경리의 소설을 원작으로 1979년 처음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이후 〈토지 1부〉(1987), 〈토지 2부〉(1988), 〈토지 3부〉(1988), 〈토지 4부〉(1989)가 KBS1에서 3년에 걸쳐 4부작으로 제작되었고, 2004년에는 SBS가 〈토지〉를 방영했다. 역사소설 〈토지〉가 역사드라마로 들어왔다는 것은 과거 왕조사 중심의 역사소설에서 민중의 삶을 총체적으로

다른 역사소설로 관심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역사소설은 김동인의 〈수양대군〉(1966), 박종화의 〈여인천하〉(1967)¹⁸⁾, 유주현의 〈대원군〉(1972) 등과 같이 왕조의 권력투쟁을 다룬 것들이다. 〈토지〉(1979, KBS) 이후 역사드라마로 각색된 소설들은 대부분 격동기 시절 민중들의 삶을 다룬 아래로부터의 역사소설이다.

〈개국〉(1983, KBS1)과 〈추동궁마마〉(1983, MBC)는 정사드라마가 제작되는 계기가 되었던 작품이다.¹⁹⁾ 1979년 유신체제의 붕괴 이후 역사드라마는 국민계도로부터 탈피해서 기록적 역사서술로 전환되었다. 〈개국〉과 〈추동궁마마〉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성계 혁명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제5공화국 정권의 의도와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제작되었던 〈풍운〉(1982, KBS1), 〈독립문〉(1984, KBS1), 〈뿌리 깊은 나무〉(1983, MBC) 등과 같은 역사드라마들의 역사서술은 1970년대와는 다른 방식이었다.

2000년대 이후 역사드라마의 내재적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작품은 〈허준〉²⁰⁾(1999, MBC)이다. 〈허준〉(1999)은 상상적 역사서

15) 민족사관정립극에 대한 당시 신문비평은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예를 들어, 이상희는 민족사관정립극인 『巨商 林尙沃』에 대한 TV주평에서 “〈巨商 林尙沃〉은 〈執念〉이나 〈李朝五百年女人시리즈〉와 달리 시청자를 흡수하는데 실패했으며, 목적극에서 보는 교훈성마저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시청자의 관심과 교훈성 모두 얻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경향신문』, 1977년 2월 1일, 5면).

16) 1970년 〈아씨〉(TBC)는 일일연속극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1971년 〈장희빈〉(MBC), 1972년 〈여로〉(KBS)로 이어지면서 일일연속극은 시청률 경쟁의 중심이 되었다.

17) 김아네스, 『사극 속의 장희빈은 어떻게 진화했는가』, 장두희 외, 『장희빈, 사극의 배반』, 소나무, 2004.

18) 박종화의 소설 〈여인천하〉는 2001년 SBS에서도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19) 정영희(2005)는 〈개국〉과 〈추동궁마마〉를 1970년대 목적극의 연장이었다고 말한다. 두 드라마는 모두 이성계의 정치사상, 혁명, 새로운 왕조건설을 다루고 있는데, 제5공화국 정권에 맞는 목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이병훈은 정치적 영향력은 인정하지만 〈개국〉과 〈추동궁마마〉는 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공인된 역사기록이나 학술논문들을 많이 참고함으로써 고증을 거쳐 드라마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정사드라마의 모범이었다는 주장한다.

20) 인물 허준은 장희빈과 마찬가지로 역사드라마에서 네 번 〈집념〉(1975, MBC), 〈동의보감〉(1991, MBC), 〈허준〉(1999, MBC), 〈구암허준〉(2013, MBC) 등장했다. 〈허준〉이 2000년대 역사드라마에서 계기가 되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연출방식의 변화다. 〈허준〉은 이야기의 빠른 전개, 화면의 화사함(의상, 미용, 미장센 등), 현대어의 대사처리, 현대음악의 활용 등에서 선도적이었다. 둘째, 역사를 서술하는데 있어서 상상력 서술, 즉 편년체 스타일이 아닌 작가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멜로드라마의 상상력과 영웅서사의 현대적 변용으로 나타났다. 셋째, 1990년대 역사드라마의 침체기에서 대중성을 확보하는데 계기가 되었다. 2003년 〈대장금〉도 역사드라마 변화의 계기가 되었던 작품이지만, 연출과 서사방식의 경우 〈허준〉과 연속선 상에 위치한다.

술 방식으로 서술되었으며, 과거와 다른 점은 연출방식의 변화 때문이다.²¹⁾ <다모>는 이전의 역사드라마와 다르게 사전제작제라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다모페인이라는 새로운 시청방식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방학기의 원작만화 『조선여형사 다모』(1995)는 드라마로 제작함으로써 기존의 원작소설 중심에서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원작만화를 드라마로 제작하는 사례는 2008년 이후 증가했다.²²⁾

3.3. 평균 제작편수와 원작각색

역사드라마 제작편수(한 방송사별 한 해 평균 제작편수)의 경우, 1978년, 1990년, 2007년이 변곡점이었다. 1978년부터 방송사 평균 제작편수는 줄어들었으며, 1990년~2006년까지 역사드라마 제작은 침체에 빠져 있다가 2007년 이후 회복 추세이다.

역사드라마가 가장 많이 제작되었던 시점은 1966년과 1970년 각각 13편이었고, 1972년, 1974년, 1976년 각각 12편이었다. 1978년 이후 10편 이상 제작된 시기는 2010년이 처음이었다. 2012년과 2013년에도 10편씩 제작되었다.

[그림1]은 한 개 방송사의 한 해 평균 제작편수이다. 1964년~1977년 3.76편, 1978년~1989년 1.86편, 1990년~2006년 1.03편, 2007년~2016년 1.68편이다.²³⁾ 1976년 12편, 1977년 9편 제작되었던 역사드라마는 1978년 5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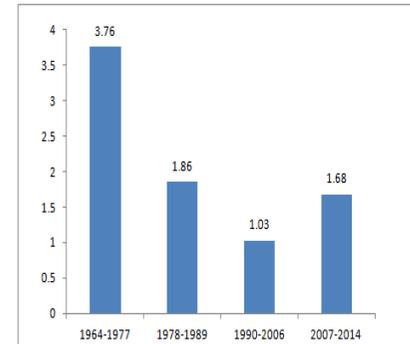
21) 이병훈, 드라마 <허준> 제작일지, 한국방송비평회, 『드라마 <허준> 을 다시 읽는다 비평토론회』, 2000.

22) 2008년 이후 원작만화를 각색한 역사드라마는 총 11편이었다. <비천무> (2008), <바람의 나라> (2008), <돌아온 일지매> (2009), <탐나는도다> (2009), <무사 백동수> (2011), <각시탈> (2012), <닥터진> (2012), <감격시대> (2014), <밤을 걷는 선비> (2015), <구르미 그린 달빛> (2016), <달의 연인:보보경심려> (201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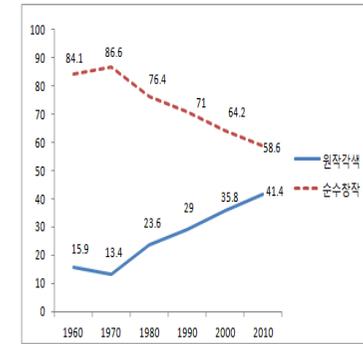
23) 한 개 방송사 평균제작편수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2007년 이후 케이블 텔레비전과 중편의 역사드라마는 제외했다. 1개 중편과 4개 케이블 채널에서 제작한 역사드라마는 총 13편(2007년~2014년)이어서 이들 채널을 포함해서 평균값을 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지상파 채널만을 중심으로 평균제작편수를 계산했다.

급속히 줄었다.

< 그림 1 > 방송사 평균 제작편수



< 그림 2 > 원작각색과 순수창작 역사드라마 비율 추이



1978년부터 갑자기 역사드라마 제작편수가 줄어든 이유로 텔레비전 드라마의 대형화를 들 수 있다. 오명환은 1978년부터 대형기획 드라마가 새 바람을 일으켰으며, 대표적인 작품들로 <6.25> (KBS), <높은 갈> (KBS) 등을 꼽고 있다. 이들은 특집극 형태로 제작된 7부작과 3부작 드라마였다.²⁴⁾

드라마의 대형화가 나타나면서 역사드라마 제작편수가 줄어든 이유로 당시 신문보도를 종합해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1977년 미국 ABC에서 제작한 <뿌리> (8부작)가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TBC에서 1978년 3월 25일에서 4월 1일까지 방영되었다.

<뿌리>가 국내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 제작방식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측된다. 고품질(quality)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광복 33주년, 건국 30주년을 특집극이 많이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일일연속극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와 언론의 압박으로 방송사들은 매일 3개 정도 편성했던 것에서 2개로 줄이면서 방송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늘렸다. 일일연속극의 제작축소가 역사드라마의 제작편수에 영

24) 오명환, 『텔레비전 드라마 예술론』, 나남출판, 1994, 140~141면.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1990년에 들어와서도 역사드라마의 제작편수는 더 줄어들었다. 1990년~1999년까지 방송사별 한해 제작편수는 0.83개에 불과했다. 한 방송사는 일년에 1편 정도 제작할 뿐이었다. MBC는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 마지막 회인 <대원군> (1990년 12월 종료)을 끝으로 역사드라마 제작을 중지했고, KBS에서도 <역사는 흐른다> (1990년 9월 종료) 이후 후속작품을 만들지 않았다. 이병훈은 역사드라마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1988년 민주화 과정 이후 방송소재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새로운 소재의 확대를 꼽았다. 사회쟁점과 관련된 드라마들이 제작되면서 역사소재는 뒤로 밀렸다는 것이다.

당시 신세대론이 부상하면서 트렌디 드라마의 열풍으로 역사드라마는 시청자의 관심 밖이었다. 1991년 개국한 SBS가 편성한 <유심초>는 참담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그만큼 역사드라마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이 적었다.²⁵⁾ 1970년대와 1980년대 군부정권은 드라마에 대한 규제를 했지만, 그것은 내용에 관한 것이지 역사드라마 제작 자체에는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에 역사드라마 제작을 위한 동력은 사라졌다.

2000년 초반 시청자의 관심이 높았던 역사드라마들이 대거 제작되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별 제작편수는 늘지 않았다. 이것은 제작편수의 문제라기보다 편당 편성길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태조 왕건>은 200부작, <여인천하>는 150부작으로 방영되었다. 2007년 이후 지상파 방송사들은 역사드라마 제작편수를 조금 늘렸다.

원작 각색과 순수 창작의 비율을 보면, 순수 창작 253개(74.9%), 원작 각색 85개(25.1%)이다. 원작과 순수창작 역사드라마와 관련해서 시기별로 특징적인 구별점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10년 단위로 보면, 원작

각색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그림 2 참조).

1979년 <토지> 이후 역사소설을 드라마로 제작하는 경우가 증가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원작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원작자를 보면 1960년대~1970년대에는 이광수, 박종화, 김동인 등, 1980년대에는 박경리, 선우휘, 한무숙, 이병주, 유현중 등, 1990년대 홍성원, 박완서, 이은성 등, 2000년대 최인호, 황인경, 유성찬, 이정명 등의 소설작품들이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4. 역사드라마의 내재적 발전

4.1. 형식 변화

역사드라마의 형식은 주간연속극(주1회), 일일연속극, 연속단막극, 주중연속극(주2회), 주말연속극(주2회)으로 변화되어왔다. 역사드라마의 형식 변화는 1964년~1971년, 1972년~1981년, 1982년~1994년, 1995년~2016년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 3> 참조.

<표 3> 시기별 특징적인 역사드라마 형식

시기 \ 형식	1964~1971	1972~1981	1982~1994	1995~2016	계
주간연속극	57(85.1)	26(30.6)	10(17.2)	2(1.6)	95(28.1)
일일연속극	7(10.4)	51(60.0)	10(17.2)	2(1.6)	70(20.7)
연속단막극	3(4.5)	7(8.2)	1(1.7)	1(0.8)	12(3.6)
주중연속극	0	1(1.2)	29(50.0)	92(71.9)	122(36.1)
주말연속극	0	0	8(13.8)	31(24.2)	39(11.5)
계	67(19.8)	85(25.1)	58(17.2)	128(37.9)	338(100.0)

25) 이병훈, 『TV사극의 변천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53~54면.

1964년~1971년에는 주간연속극이 지배적인 형식이었고, 1972년~1981년의 경우, <장희빈> (1971~1972, MBC)이 인기를 끌면서 일일연속극 시기로 접어들었다. 1982년~1994년에는 다양한 드라마 형식들로 혼재했다. 주중연속극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했지만, 주말연속극이 등장했고, 일일연속극도 어느 정도 편성되었다.

최초 역사드라마인 <국토만리> (1964, KBS)는 주간연속극이었다. 1964년~1968년까지 주간연속극 이외의 다른 형식 역사드라마는 제작되지 않았다. 주간연속극은 1967년 한해 13편으로 가장 많이 제작되었지만, 점차로 조금씩 줄어들었다. 주간연속극은 1984년에 2편이 편성된 이후 1990년, 1991년, 1993년, 1996년, 2005년 각각 1편씩 그리고 1992년 2편이 편성되었을 뿐이며, 2006년 이후에는 더 이상 편성되지 않았다.

1969년 채만식 소설을 각색한 <태평천하> (MBC)가 역사드라마로는 처음으로 일일연속극으로 방영되었다. 1964년 최초의 일일연속극 <눈이 나리는데> (TBC)가 등장했지만, 역사드라마 일일연속극이 상대적으로 늦게 제작된 것은 스튜디오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세트, 의상, 고증 등 제작상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일일연속극은 1970년대 초중반 (1972~1976) 역사드라마뿐만 아니라 멜로드라마의 지배적인 형식이었다.²⁶⁾ 대부분 역사드라마는 일일연속극으로 방영되었다. 당시 일일드라마는 3개 방송사에서 매일 4~6편 편성했는데, 최소 1편은 역사드라마였다. 1983년 이후 일일연속극 역사드라마는 드물게 방영되었고, 1992년 이후 일일연속극 역사드라마는 거의 사라졌다.

<표 4> 역사드라마 형식의 전개과정

형식	시기	전개과정
주간 연속극	1964	<국토만리> (KBS), <민머느리> (TBC)
	1967	주간연속극 최다편성(13개)
	1994	이후 주간연속극 사실상 폐지
일일 연속극	1969	<태평천하> (MBC)
	1972	일일연속극 최다편성(10개)
	1992	이후 일일연속극 폐지
연속 단막극	1971	<개화백경> (KBS)
	1987	이후 연속단막극 사실상 폐지(1999년 <어사출두> (KBS2))
주중 연속극	1981	<장희빈> (MBC) 월요일과 화요일 주2회 편성
	1994	이후 주중연속극 고정 편성
주말 연속극	1985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말고> (MBC) 토요일과 일요일 주 2회 편성
	1995	이후 주말연속극과 주중연속극 편성체제로 고정

1971년 <개화백경> (KBS) 등이 연속단막극으로 편성되었다. <개화백경>은 이규태의 풍물서(風物書)를 각색해서 개화기 서민들의 생활을 보여준 드라마였다. 연속단막극은 역사드라마 형식에서 주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연속단막극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작품은 <전설의 고향> (1977~1989, KBS1; 1996~1999, KBS2)이다.

주중연속극은 <여인열전 1화 장희빈> (1981, MBC)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편성되면서 시작되었다. 1982년 MBC는 <여인열전 2화 서궁마마>, <여인열전 3화 은장도> <여인열전 4화 황진이>를 목요일과 금요일 편성했다.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 (MBC)는 월화, 수목, 목금 등 일주일에 두 번씩 방송되었다. 주중연속극은 현재까지 역사드라마의 지배적인 형식이다.

26)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일일연속극의 기점은 1969년으로 본다(백미숙, 2013, 70쪽). 1969년 MBC 개국 이후 3개 방송사 경쟁이 시작되었는데, 경쟁의 정점에 일일드라마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말연속극은 1985년 개화기 시대 신분이 다른 세 여인의 인생을 그린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말고> (MBC)가 편성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드라마는 허구적 등장인물을 설정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역사 멜로드라마였다. 1986년 KBS1도 선우휘의 소설을 극화한 <노다지> 를 시작으로 주말연속극을 정규 편성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198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주간연속극, 일일연속극, 주중연속극, 주말연속극이 함께 편성되었다. 역사드라마는 1995년부터 주중연속극과 주말연속극으로 고정 편성되었다.

4.2. 시대배경

분석된 전체 역사드라마는 338개였지만, 시대배경분석에서 12개의 드라마는 제외되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연속단막극으로 여러 역사배경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대배경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49개 항목으로 세분류되었지만, 6개 항목으로 재설정했다. 조선 전반기는 태조부터 현종까지이고, 조선 후반기는 숙종에서 순종까지이다. 모호한 조선은 배경이 조선시대로 설정되었지만 어느 시기인지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일제강점기에서 한국전쟁²⁷⁾까지로 설정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역사드라마가 78.9%로 압도적이다(〈표 5〉 참고). 조선 전반기, 조선 후반기, 모호한 조선의 배경은

27) 역사드라마의 시대배경은 1950년 한국전쟁 이전까지로 한정했다. 역사드라마 시대배경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과거 시간을 다루어야 역사드라마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란거리이다. 한국전쟁을 기준으로 설정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역사평가를 위해서 대체로 두 세대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두 세대는 역사드라마의 역사성과 허구성을 만족시키는 최소 시간이라고 생각되었다. 둘째, 현실적으로 문제로 전체 드라마를 모두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시대극은 역사드라마 범주에서 제외했다. 시대극은 1950년대나 1960년대를 시작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시대극의 경우 각 드라마의 시기를 기존 자료로 명확히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비슷한 수치이다. 다음으로 고조선~남북국 시대가 8.1%, 일제~6.25가 6.8%를 차지하고 있다.

1964년~1971년 사이 모호한 조선으로 배경이 된 드라마가 51.5%를 차지했다. 모호한 조선을 시대배경으로 삼는 드라마들은 모두 가부장제도 하에서 여인들의 애환을 다룬 것들이다. 조선 전반기를 다룬 드라마는 다른 시기와 비교해서 22.7%로 많이 제작되었다.

1972년~1982년 사이 조선 전반기와 조선 후반기를 다룬 역사드라마는 비슷한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모호한 조선의 배경이 38.4%로 가장 많았다. 여성 역사 멜로드라마가 많이 제작되었기 때문이지만, 1964년~1971년에 비하면 13.1%나 줄어들었다. 1983년~1990년 사이에는 조선 후반기를 다룬 역사드라마가 많았다. 정사드라마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모호한 조선을 배경으로 삼거나 역사적 자료가 부족한 시기는 배경으로 설정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일제~6.25까지 다룬 드라마가 16.2%나 차지했다.

〈 표 5 〉 시기별 역사드라마의 시대배경

시기 \ 시대배경	1964~ 1971	1972~ 1982	1983~ 1990	1991~ 1999	2000~ 2016	계
고조선~남북국	6(9.1)	2(2.3)	0	1(3.6)	17(15.6)	26(8.0)
고려~선조	1(1.5)	5(5.8)	3(8.1)	1(3.6)	12(11.0)	20(6.7)
조선 전반기	15(22.7)	22(25.6)	10(27.0)	10(35.7)	32(29.4)	89(27.3)
조선 후반기	8(12.1)	23(26.7)	15(40.5)	9(32.1)	31(28.4)	84(26.4)
모호한 조선	34(51.5)	33(38.4)	3(8.1)	3(10.7)	8(7.3)	81(24.8)
일제~6.25	2(3.0)	1(1.2)	6(16.2)	4(14.3)	9(8.3)	22(6.7)
계	66(20.2)	86(26.4)	37(11.3)	28(8.6)	109(33.4)	326 (100.0)

2000년~2016년까지 특징적인 시대배경은 고조선~남북국 시대 17편 (15.6%), 고려~려말선초 12편(11.0%)이다. 2000년 이후는 역사드라마의 소재 한계를 극복한 시기로 고구려 7편,²⁸⁾ 백제 5편, 신라 2편, 발해 1편, 가야 1편 등이 배경이 되었다. 고구려에 대한 관심은 2003년 후반에서 2004년 초반 중국의 동북공정이 알려지고, 고구려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당시 고구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주몽> (2006~2007, MBC), <연개소문> (2006~2007, SBS), <대조영> (2006~2007, KBS1)의 인기로 이어졌다. 고려를 배경으로 삼은 드라마들로 <제국의 아침> (2002~2003, KBS1), <무인시대> (2003~2004, KBS1), <신돈> (2005~2006, MBC), <무신> (2012, MBC) 등이 있다. <태조 왕건> (2000~2001, KBS1)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고려시대로 역사배경이 확장되었다.

4.3. 서사와 서술방식

전체 역사드라마의 주요 서사는 인물 중심 역사드라마 94편(27.8%), 역사 멜로 75편(22.2%), 시대맥락 중심 45편(13.8%), 의적과 무협 역사드라마 41편(12.1%)이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역사드라마는 여인들의 애환을 다룬 역사 멜로가 많았다. 시기적으로 보면, 1960년대 역사 멜로, 인물 중심, 고전 · 설화 등에서 1972~1982년 인물중심과 역사 멜로의 흐름으로 이어졌다가 1983~1990년 시대맥락 중심과 민중의 삶을 다룬 서사가 부상했다. 1991년 이후에는 다시 인물중심 서사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표 6〉 참고).

1964년~1971년 역사 멜로와 더불어 특징적인 서사는 인물 중심과 고전 · 설화를 다룬 것들이다. 인물 중심 서사에서 세조를 주인공으로 다룬 드라마가 3편(〈수양대군> (1966, KBS), 〈세조대왕> (1976, KBS), 〈수양산

맥> (1969, MBC)과 효종의 복벌을 다룬 드라마가 2편(〈대춘부> (1968, KBS), 〈복벌검> (1970, KBS))이었다. 고전 · 설화 등을 다룬 드라마는 옛 이야기 전달자로서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위치를 보여준다. 1971년 고전시리즈라는 명칭으로 고전소설이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고전시리즈는 최초로 30분짜리 일일연속극으로 편성시간을 고정하는데 기여했다.²⁹⁾

〈 표 6 〉 시기별 역사드라마의 서사

시기 \ 서사	1964~1971	1972~1982	1983~1990	1991~1999	2000~2016	계
고전 · 설화 등	10(15.0)	9(9.8)	1(2.6)	1(3.4)	3(2.7)	20(5.9)
왕 · 세도가 중심	9(13.4)	9(9.8)	0	0	7(6.3)	25(7.4)
역사 멜로	21(31.3)	24(26.1)	9(23.1)	3(10.3)	18(16.2)	75(22.2)
시대맥락 중심	1(1.5)	7(7.6)	15(38.5)	6(20.7)	16(14.4)	45(13.8)
인물 중심	13(20.9)	28(30.4)	2(5.1)	9(31.0)	41(36.9)	94(27.8)
민중의 삶	5(7.5)	8(8.7)	10(26.6)	4(13.8)	7(6.3)	34(10.1)
의적과 무협	7(10.4)	7(7.6)	2(5.1)	6(20.7)	19(17.1)	41(12.1)
계	67(19.8)	92(27.2)	39(11.5)	29(8.6)	111(32.8)	338(100.0)

1972년~1982년 사이 인물 중심 서사가 가장 많았다. 유신헌법개정 이후 1973년 1월 박정희는 연두회견에서 “10월 유신은 민족주체성과 주체적 민족사관의 정립에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는데,³⁰⁾ 문화공보부는 민족사관 정립과 민족문화 계승이라는 목적성에 부합하는 드라마 제작을 강조했다. 1인 인물 중심의 역사를 다룬 드라마와 민족정기를 극화하는 국난극 시리즈와 민족사관정립극이 등장했다.

28) <주몽> (2006, MBC)은 고구려 배경이 아니라 고조선 배경으로 설정했다.

29) 이정훈, TV드라마 30년-작품으로 본 한국 방송사, 『방송시대』 통권 6호, 1994, 184면.

30) 『매일경제』, 維新의 새 指標명시, 1973년 1월 13일, 3면.

1983년~1990년에는 인물 중심 서사가 쇠퇴하고 시대맥락 중심의 정사 드라마와 민중의 삶을 다루는 드라마들이 부상했다. 1970년대 내내 역사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정사드라마는 새로운 모색이었다. 민중의 삶을 다루는 역사드라마들은 대체로 왕조사를 다룬 소설에서 벗어나서 민중사를 다룬 역사소설을 드라마로 제작한 것들이다. 이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박경리 소설을 각색한 <토지> (4부작)(1부 1987, 2부 1988, 3부 1988, 4부 1989, KBS1), 김주영 소설 <객주> (1983, KBS2), 선우휘 소설 <노다지> (1986, KBS1), 한무숙 소설 <역사는 흐른다> (1989, KBS1) 등이다.

1991년~1999년의 경우 인물 중심 서사가 다시 부상하면서 2000년~2016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시기의 인물 중심 서사는 1970년대 인물 중심 서사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1970년대는 국란의 위기를 극복한 역사적 위인을 중심으로 상찬과 계도의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특정 인물의 권력욕망, 성공과정 그리고 로맨스를 결합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에는 남성, 권력자 중심에서 벗어나서 여성, 내시, 중인, 상궁, 상인 등 다양한 인물들이 욕망의 주체로 형상화되었고, <이산> (2007~2008, MBC)이나 <대왕세종> (2008, KBS2)과 같이 왕의 경우도 고뇌하고 성찰하는 인물로 새롭게 구성되었다.³¹⁾

역사드라마의 서술방식을 시기별로 보면, 1964년~1971년 허구적 서술방식에서 1972년~1982년 개연적 서술방식으로, 1983년~1990년에는 기록적 서술방식으로 바뀌었고, 1991년~1999년 다시 개연적 서술방식으로 전환되었다가 2000년 이후에는 상상적 서술방식으로 변화되었다 (<표 7> 참고).

< 표 7 > 시기별 역사드라마의 서술방식

시기	1964~1971	1972~1982	1983~1990	1991~1999	2000~2016	계
기록적 서술방식	1(1.5)	5(5.4)	12(30.8)	2(6.9)	1(0.9)	21(6.2)
개연적 서술방식	11(16.4)	29(31.5)	3(7.7)	11(37.9)	18(16.2)	72(21.3)
상상적 서술방식	14(20.9)	17(18.5)	7(17.9)	7(24.1)	55(49.5)	100(29.6)
전형적 서술방식	1(1.5)	0	7(17.9)	1(3.4)	5(4.5)	14(4.1)
허구적 서술방식	40(59.7)	41(44.6)	10(25.6)	8(27.6)	32(28.8)	131(38.8)
계	67(19.8)	92(27.2)	39(11.5)	29(8.6)	111(32.8)	338(100.0)

역사드라마의 서술방식은 서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역사 멜로드라마가 유행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까지 허구적 서술방식이 주도적이었고, 정부의 정책드라마가 확대되기 시작했던 1970년대 초반부터는 영웅에 대한 개연적 서술방식이 부상했다가 1983년~1990년 사이 정사드라마가 제작되면서 기록적 서술방식으로 바뀌었다. 1991년~1999년 사이 정사드라마가 갖는 공식적 역사기록에서 벗어나면서 개연적 서술방식으로 변화되었다가, 2000년 이후에는 사료 중심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상상의 역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5. 결론

31) 이영미, 「라디오·TV 왕조사극의 경향과 그 의미」, 대중서사장르연구회, 『대중서사 장르의 모든 것 2: 역사허구물』, 이론과 실천, 2009, 385면.

이 연구는 지난 50여 년 동안 역사드라마의 변천과 특성들을 살펴보았

다. 역사드라마의 변화과정에 어느 한 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기보다 여러 요인들이 상황에 따라 결합되어 장르 변형과 변화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역사드라마의 시기구분은 i) 옛 이야기와 교양의 시기(1964~1972), ii) 경쟁과 국민계도의 시기(1972~1982), iii) 사실(史實) 추구 시기(1983~1990), iv) 침체와 모색의 시기(1991~1999), v) 상상의 역사서술 시기(2000~2016)로 나누어볼 수 있다.

역사드라마의 변화는 두 가지 요인, 즉 외재적 변화와 내재적 발전과정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나 두 가지 요인이 동일하게 변화를 이끈 것은 아니었다. ‘옛 이야기와 교양의 시기’에는 역사영화와 라디오 역사드라마의 영향이 텔레비전 역사드라마 구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왜냐하면 영화와 라디오를 통해서 역사드라마의 수용자층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1967년 편집가능한 표준 녹화기가 도입되면서 역사드라마의 제작이 활성화되었다. 매체 관련성(inter-media)과 기술이 우선적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경쟁과 국민계도의 시기’의 경우, 유신정권이 강제한 정책의 영향력이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동시에 역사드라마의 내재적 발전도 함께 나타났다. 주간연속극에서 일일연속극으로의 변화와 허구적 역사서술에서 인물 중심의 역사서술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비록 유신정권의 민족사관 정립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역사드라마 제작의 범위를 설정했지만, 대중이 그와 같은 드라마들을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다.

‘사실 추구의 시기’에서 방송환경은 공영방송체제로 변화되었고, 컬러방송이 시작되었다. 공영성으로서의 드라마와 기술 변화가 우선적으로 역사드라마의 변화를 이끌었고, 이데올로기로서의 역사에서 벗어나서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침체와 모색의 시기’에서 민주화와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오히려 역사드라마를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상상의 역사서술 시기’에는 외적인 요인보다는 역사드라마 내재적 요인이 상상적 역사드라마를

이끄는 힘으로 작동했다.

옛 이야기와 교양의 시기로부터 침체와 모색의 시기까지 역사드라마의 표현방식은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역사드라마의 변화는 좀더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분화되었다. 2000년 이후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역사소설이나 역사영화와 동계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허구성이 강화됨에 따라 1990년대 이전까지 빈번하게 등장했던 남성 해설자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등장인물들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다. 허구적 상상력이 역사의 계몽적 권위를 해체한 자리를 대체하면서 사실과 허구의 위계와 경계는 허물어졌다. 역사드라마가 현재 정치현실과 알레고리를 형성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향도 나타났다.³²⁾

이와 비슷하게 2000년대 텔레비전 역사드라마는 ‘변용가능성(variation)으로서의 역사’나 역사적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상상으로서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외연을 확장했다. 역사적 사실여부보다 역사적 기록 아래에 깔려 있는 공백을 상상력으로 메우면서 역사인식이나 역사효과를 유도하고 있다.³³⁾ 2000년 이후 역사드라마는 여전히 강한 민족주의를 소환하지만, 동시에 민족은 배경으로서만 존재하거나 탈민족의 경향,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 즉 억압과 저항, 지배와 피지배, 해방과 자유, 부조리와 정의의 문제를 역사 안으로 위치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역사드라마의 시기를 구분하고 통계자료를 활용하면서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연구방법이 지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형식과 내용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볼 수

32) 대중서사장르연구회, 『대중서사 장르의 모든 것 2: 역사적 허구물』, 이론과 실천, 2009, 40~41면.

33) 윤석진, 2000년대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지형도, 『텔레비전드라마 연구회, 텔레비전 드라마, 역사를 전유하다』, 소명출판, 2014, 483면.

는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라마 속에서 표현되는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간연속극에서 일일연속극으로, 일일연속극에서 주중 주말 연속극의 형식변화가 구체적으로 드라마의 표현방법과 역사서술에 어떻게 작동했는가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게다가 외재적 변화와 역사드라마의 내재적 구성과정 사이의 공백들을 채우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갖는 의미는 사회변화의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역사드라마의 변화과정을 살핌으로써 전체적인 흐름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이 연구가 갖는 제한점들은 추후 미시적 접근방법이나 질적 방법(비평적 시각)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1970년 3월 12일, 8면.
 『경향신문』, TV주평, 1977년 2월 1일, 5면.
 『매일경제』, TV드라마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 1972년 3월 25일, 6면.
 『매일경제』, 維新의 새 指標명시, 1973년 1월 13일, 3면.

2. 단행본

- 김아네스, 「사극 속의 장희빈은 어떻게 진화했는가」, 정두희 외, 『장희빈, 사극의 배반』, 소나무, 2004.
 대중서사장르연구회, 『대중서사 장르의 모든 것 2: 역사적 허구물』, 이론과 실천, 2009.
 백미숙, 1960년대 텔레비전의 ‘창작문에 단막극’: 라디오 방송 문예와 연극 대중화 운동의 관계 속에서, 한국방송학회 엮음,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 역사와 경계』, 컬처북, 2013.
 오명환, 『텔레비전 드라마 예술론』, 나남출판, 1994.

- 윤석진, 2000년대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지형도, 텔레비전드라마연구회 지음, 『텔레비전 드라마, 역사를 전유하다』, 소명출판, 2014.
 이병훈, 드라마 〈허준〉 제작일지, 한국방송비평회 프로그램 비평토론회, 『드라마 〈허준〉을 다시 읽는다』, 2000.
 이윤진, 『한국의 이야기 문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한국학술정보, 2006.
 정영희, 『한국 사회의 변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McQuail, D., McQuail's Mass Communication Theory(5th Edition), London: Sage, 2005.
 Altman, R. Cinema and genre, In G. Nowell-Smith(Ed.), The Oxford History of World Cinem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Neal, S., Genre, London: British Film Institute, 1980.

3. 논문

- 이병훈, TV사극의 변천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이정훈, TV드라마 30년사-작품으로 본 한국방송사, 『방송시대』, 통권 6호, 1994.
 조항제, 1970년대 한국 텔레비전의 구조적 성격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과 텔레비전 자본주의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 신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주창윤, 역사드라마의 장르사적 변화과정, 『한국극예술연구』 제25집, 2007.
 주창윤, 한국 역사드라마 데이터베이스(DB)와 해제:1964~2014, 『한국극예술연구』 제52집, 2016.

Abstract

The variation and change of television historical drama in Korea

Joo Changyu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classification of period over the 50 years in Korean television historical dramas. This research classifies the historical dramas at five periods, considering generic development and social context. First, it is called as 'the period of watching old stories and general education' from 1964 to 1971. Television historical dramas were strongly influenced by historical films and radio dramas which were popular in those days, dramatizing classic novels and legends in melodramatic conventions. Second, it is defined as 'the period of competition and dominant ideology production' from 1972 to 1982. Historical dramas were programmed from weekday series to daily series, focused on historical probability. Though the government forced the broadcasters to produce historical dramas to represent a historical view of a nation as a dominant ideology, these kinds of dramas were firmly excluded by the mass. Third, historical dramas have tended to 'pursuit historical facts' in 1983~1990, taking a perspective of historical records. In these days, as color television broadcasting was started, television historical dramas kept enlargement and promoted location production beyond studio production. This period is named as the history-based times. Fourth, 'the period of depression and groping' came on 1991~1999. The production of historical dramas was in depression, and historical dramas were not popular any more. The final period is considered as drama as imagination from 2000 to the present. Imaginative historical dramas have been popular, blending a wide

range of conventions and inventions from trendy drama, melodrama and action drama. In addition, historical backgrounds have expanded to ancient history or the Koryo Dynasty.

Key words : change of production environment, generic history, historical drama, narrative, period classification,

접수일: 2017년 3월 14일
심사기간: 2017년 5월 16일~5월 28일
게재결정: 2017년 6월 21일